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강남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지정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이에 대해 조계종의 자율적 결정이라기보다 정권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러자 외압설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해 자승 총무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좌파 주지 운운'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명진 스님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외압설'은 진실게임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지난해 총무원장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 등의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그 모임에 동석한 김영국 거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진 스님의 발언은 100% 진실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불자 세상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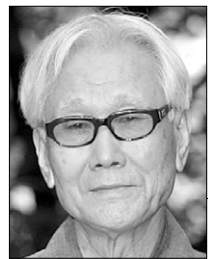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종교와 정치는 철길 같아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수장 앞에서 좌파 주지 운운한 것은 불교의 자주성을 모독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 참으로 부당한 언행이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심해진 여러 종교 편향 사례에 분노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불교도들은 2008년 8월 27일 시청 앞 광장에서 '헌법과 종교차별 종식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도 이러한 사실과 불교인들의 불편한 정서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은 불교를 경시하고 무시한 데서 연유한 것 같다. 12개 불교 관련 단체가 안 원내대표의 사과와 공식 사퇴를 촉구한 것은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한국 불교는 1700년 가까이 우리 겨레와 고락을 같이 하면서, 혹은 민족문화창달의 원천으로서 혹은 조국평화의 수호신으로서 민족사에 큰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조선조 500년간의 박해와 일제 치하에서의 시련을 겪으면서 빛나는 문화창조의 전통을 상실한 불교는 침체의 늪 속에 빠져들게 된다. 광복 이후 더욱 거세어진 서구문명의 유입과 참혹한 6.25 전쟁의 격랑 속에서 몹시 쇠약해진 불교는 설상가상으로 이른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말미암은 '비구-대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한국불교는 좌절하지 않고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30년 전 전두환 정권의 10.27 법안으로 불교의 자존심은 다시 한 번 무참히 짓밟히고

절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은 부처님의 조각상인 그 불상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경모습으로만 판단한다면 불교는 영락없는 우상숭배의 종교입니다. 허나 정말로 그럴까요? 단편적 경모습으로 한 종교의 진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불교에서는 눈이나 귀 같은 감각식(感覺識)에만 의존하는 판단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 사부대중 갈림

김동민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 불교는 우상 숭배의 종교인가

바세제(娑婆世界)에서 겪는 일체의 일을 고로 보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당신 스스로가 수행·고행을 통하여 체득하신 방법을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설하셨습니다. 설하신 행복에는 두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이 사바세계에서의 행복이고, 다음은 구경(究竟)의 행복입니다. 구경의 행복이란, 존재 그리고 윤회전생(輪廻轉生)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여(眞如)와 합일하는 절대자유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불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불상에 예배드리는 것도 역시 수행의 방편이며, 불상은 그 도구일 뿐입니다. 중생은 근기가 약합니다. 지혜가 없고, 의지와 집중력이 부족하고, 윤회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불상을 모셔

놓고, 그것을 스승 석가여래라고 생각하면서 신심과 수행심을 가다듬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의식을 올리기도 하고, 가피(加被)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절에서 불상을 기복(祈禱)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부처님에게 개인적 소원성취를 비는 행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타(利他)의 마음으로 남과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참 불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열력(熱力)이 합해질 때, 우리 사회는 청정함과 평화와 자비의 기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기복불교는 조선왕조 치하에서 500여 년간 이어진 혹독한 불교탄압의 산물입니다.

만다. 한마디로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는 종교와 정치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빚어낸 영욕의 역사라고 함직하다. 우리는 이러한 불교역사, 아니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다시금 종교와 정치의 올바른 관계를 복원해가도록 해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제시는 고타마 붓다의 탄생 설화에 잘 나타나 있다. 시타트라 태자가 태어났을 때, 당시 카필라성의 유명한 관상가이자 예언인 아시타 선인은 태자의 서른 두 가지 특별한 상호를 보고, "이와 같은 32상을 가진 사람은, 만약 그가 집에 머무른다면 위대한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한다면 거룩한 여래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다. 이 예언은 결국 여래와 전륜성왕은 참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 말해준다. 부처님과 전륜성왕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인류의 구제자다. 부처님은 정신적 구제자를 대변하고 전륜왕은 세간적 구제자를 대변한다. 따라서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전륜성왕은 부처님의 이상을 세속 사회에 실현하는 부처님의 대행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은 정치인을 존중하고 도와야 하며 정치인 역시 종교인을 존중하고 도와야 한다. 불교적으로 볼 때, 종교와 정치는 기차가 달리는 철길 같아야 한다. 일정한 거리를 달리 서로 외면하지 않는 저영원한 평행선 같아야 인류의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설

### 4대강 살림 위한 실천이 절실하다

오는 17일 조계사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불교대회가 열린다. 30여 사찰과 단체가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봉행하는 수륙대제에 신도들과 회원들이 동참한다. 추진위원회는 1만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행사 이후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여러 방법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수질 악화와 하천생태계 파괴, 사밀한 관계에 있음에 말해준다. 부처님과 전륜성왕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인류의 구제자다. 부처님은 정신적 구제자를 대변하고 전륜왕은 세간적 구제자를 대변한다. 따라서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전륜성왕은 부처님의 이상을 세속 사회에 실현하는 부처님의 대행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은 정치인을 존중하고 도와야 하며 정치인 역시 종교인을 존중하고 도와야 한다. 불교적으로 볼 때, 종교와 정치는 기차가 달리는 철길 같아야 한다. 일정한 거리를 달리 서로 외면하지 않는 저영원한 평행선 같아야 인류의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이다.

(49.9%)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불교계는 지난 3월 초 심포지엄을 열어 여러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을 살펴봤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에 '4대강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연현상은 100%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하며, 경계해야 한다. 온 국토를 대상으로 벌이는 토목사업에 의한 재앙을 염려하는 불교인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국민들은 반대하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여전히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에 한치의 변화도 없다.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불교인들의 발원과 실천이 더욱 절실해졌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전국 사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청된다.

### '봉은사 직영' 첫 단추부터 다시 꺾자

한 달여 동안 조계종단을 들쭉이게 했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사태가 토론회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의 10개 단체의 대표들은 최근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에게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고, 양쪽 모두 토론회 개최에 동의했다. 폭로와 반박을 반복하면서 부딪혔던 상황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총무원측은 중앙총회의 동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봉은사 측은 외압 의혹의 해소와 봉은사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를 연다고 하지만, 현 재로서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견해 차이를 넘어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남아야 할 산이 절첩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 난을 통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이 사태로 번진 원인은 지정 목적이 불명확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총회에서 인건을 채택해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한 것을 번복하자는 것이 아니다. 총무원이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지정하기로 한 목적이 수도권 포교벨트 구축이었던지,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사찰의 역할을 제시하는 중에 봉은사의 역할을 제시했어야 한다.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면 첫 단추부터 다시 꺾어야 한다.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판부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총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승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정,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응호계(신중작법39위, 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응연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연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강 주 : 김범은 스님, 이현진 스님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 강의장소 : 경북교구 총무원 설법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총무원 (경북 경산시 외촌면 동강 2리 265)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총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 사찰,범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 법당·앰프·마이크·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법당 앰프 PWA-110 320x230x270mm, 8.5kg PWA-730 430x275x275mm, 4kg PWA-3000 200x480x230mm, 11kg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중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평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사찰 CCTV 설치

대덕르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